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5. 31.(금) 07:00 ~ 2024. 6. 2.(일) 22:00
- 상담건수¹⁾: 1,37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5명)

-프로그램명 : 「다큐 인사이드」 ‘치킨 랩소디 - 2부 닭 한마리의 위로’

-방송일시 : 2024. 5. 31.(금) 1TV (22:00-22:50)

‘치킨 랩소디’를 너무 잘 봤다. 컴퓨터로 메모까지 남기면서 시청할 정도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KBS가 음식 다큐멘터리를 특히 잘 제작하는 것 같다. 치킨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다. 어떻게 취재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유익했다.

○ 출연자 섭외 제언(3명)

-프로그램명 : 「전국노래자랑」

-방송일시 : 2024. 6. 2.(일) 1TV (12:10-13:30)

초대가수로 박상철 씨가 출연했다. 박상철 씨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좋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공영방송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출연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공영방송에 출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3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이슈 청원 : ‘KBS 뉴스’ 김호중 보도 중단 외 1건.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37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679	34	-	-	662	1,37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86	505	25	-	1	158	1,37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59	1,116	-	1,37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161	3	75	136	1,37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 방송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호평 ○ 「다큐 인사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노래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 「더 시즌즈- 지코의 아티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연주 명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게 문의’ 연락처 문의 73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감발펜션’ 연락처 문의 49건 ○ 「전국노래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 제보’ 33건 ○ 「동네 한 바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엉겅퀴’ 연락처 문의 32건 ○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시간’ 문의 19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3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0건 ○ 「수신료」 문의 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9건 ○ 「전화교환」 문의 10건 ○ 「견학」 문의 3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36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사람과 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23.~2017. 10. 11. 1TV 방송. (총 96부작) - 유튜브를 통해 2016년도 방송분을 시청했는데 관심이 갔다.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되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p>○ 「6시 내고향」 ‘팔도 배달맨 - 배달맨의 탄생 1부’(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5. 30.(목) 1TV (18:00-19:00) - 오직 KBS만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애청자로, 이날 슬리피 씨가 출연하는 새 코너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기회가 된다면 본인의 큰 오빠도 해당 코너에 출연시키고 싶을 정도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진행자 호평	<p>○ 「아침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5. 31.(금) 1TV (08:25-09:30) - 김재원 아나운서의 능숙한 진행은 말할 것도 없고, 김수찬 씨의 통통 튀는 보조 진행이 너무 재미있다. 김수찬 씨가 가수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지 미처 몰랐다. 김수찬 씨의 진행을 보기 위해 금요일만 기다릴 정도이다. 잘 보고 있다는 의견이 전해지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다큐 인사이드」 ‘치킨 랩소디 - 2부 닭 한마리의 위로’(5명)</p> <p>- 2024. 5. 31.(금) 1TV (22:00-22:50)</p> <p>- ‘치킨 랩소디’를 너무 잘 봤다. 컴퓨터로 메모까지 남기면서 시청할 정도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KBS가 음식 다큐멘터리를 특히 잘 제작하는 것 같다. 치킨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다. 어떻게 취재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유익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 예 · 오 략]	
출연자 섭외 제언	<p>○ 「전국노래자랑」 (3명)</p> <p>- 2024. 6. 2.(일) 1TV (12:10-13:30)</p> <p>- 초대가수로 박상철 씨가 출연했다. 박상철 씨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좋지 않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공영방송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출연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무엇을 배울지 우려된다. 공영방송에 출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더 시즌즈- 지코의 아티스트」</p> <p>- 2TV (금) (22:00-23:30)</p> <p>- 애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지코 씨를 좋아해서 방청 신청을 했다가 당첨도 됐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5. 30.(목) 2TV (20:55-22:15) - 공영방송을 애청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느낀 점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이 신장되며 여성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지 않는데, 해당 방송을 시청하면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해당 프로그램이 이혼에 대한 여론을 좋게 형성할 것 같아 우려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라디오]	
진행자 호평	<p>○ 「명연주 명음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6. 1.(토) 1FM (14:00-16:00) -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정만섭 씨가 전문적으로 진행을 잘한다. 이 분이 클래식 채널에서 오랜 기간 진행해왔기에 믿음이 간다. 잘 듣고 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